

농촌지역 문화사랑방 뜬다

순창군 읍·면 작은도서관 확대... 내달 22일까지 전면 수요조사

순창군이 읍·면 작은도서관 확대 방침을 결정하고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밝혀 농촌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은 물론 새로운 문화사랑방으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달 간 현장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요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조성방향과 예산편성 등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시설에 165㎡내외의 소규모 도서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비전 21·에서 작은도서관 1만개 조성운동을 제시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조성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시군 자치단체에 재정부담 없이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132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 책을 매개로한 마을단위 '문화사랑방'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순창군의 경우 '동계작은도서관' 1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군간 균형조성은 물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



순창군이 읍·면 작은도서관 확대 방침을 결정하고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이라는 주민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5년 개관한 동계작은도서관은 연간 7800여명의 주민들이 도서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갈 곳 없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도서관에 모여 책놀이를 즐기고, 동네 주부들은 다목적실에서 취미와 여가를 향유하는 등 사라져가는 동네 공동체를 되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도서관은 경제적 논리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무형의 자산"이라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시설중 하나로 설계에 반영하여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작은도서관이 동네와 마을 주민을 이어주는 생활 속 신(新)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춘향愛부각' 서울시민 입맛 정조준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29일까지 7일간 특별판매전 개최

남원시부각협동조합(대표 김계식)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춘향愛부각'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실시되는데, 서울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각을 제대로 홍보해 보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전통음식으로 신선한 채소나 해초, 식물성 식품을 손질하여 찹쌀풀이나 밀가루를 발라서 말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기름에 튀겨 먹는 저장음식의 하나인 부각은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나 그 작업과정이 주로 수작업에 의지해 일관성 없는 맛과 유통기간이 난제로 대두되어 왔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남원 산 부각의 맛과 제조 기술의 표준화를 꾀하기 위해 품질인증 기술을 투입하고 저장기간 연장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에 자극 받은 민간에서도 크고 작은 부각 생산업체가

의기투합, 남원시부각협동조합을 결성(2016년)하기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지역농업 특성과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1차(생산)→2차(가공)→3차(체험·판매) 복합산업화로 이어지는 경제활동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그 세부사업으로 부각협동조합은 익일 유통시스템, 해외 시장 개척, 관광지 연계 체험센터 구축 등 남원부각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부각제조장 현대화, 수출기반 조성, 해외 박람회 추진, 리플릿 제작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각협동조합을 비롯한 4개 사업장이 참여하는데, 대표 상품인 '춘향愛부각' 뿐 아니라 각 회원사의 우수제품도 소개된다. 남원부각이 지역성을 벗어나 서울 시민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청렴 조직문화 확산 앞장 직원 100여명 대상 교육 실시

임실군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청사 농민교육장에서 고위공직자, 신규 임용자, 승진자, 부패취약분야종사자 등 청렴·부패에 취약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소극행정 의 개념·유형 및 징계기준,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징계 감경 확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공직자를 바라보는 청렴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감찰,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선대 화장실 명품화장실 거듭

2억8000만원 투입 새단장 완료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과 푸른 녹지가 어우러져 사계절 전국에서 찾는 국민관광지 관촌면 사선대 화장실이 새단장을 마쳤다. 2017년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총 2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88㎡에 장애인화장실, 모유수유실을 갖췄다.

기존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을 친환경 순환 수세식으로 교체, 자연과 어울리는 이름답고 특색 있는 명품화장실로 거듭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 및 쾌적한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찾아가는 복지차량으로 사각지대 해소

남원시 차량 11대 전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남원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장,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맞춤형 복지차량은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조직을 통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번 운용되는 복지차량은 총 11대로 금동, 도봉동, 왕정동, 축항동, 동충동, 향교동, 노암동, 금지면, 주생면, 송동면, 대강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했다.



남원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남원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나서 보다 신속하게 현장중심의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고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환중 시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복지서비스가 주민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찬바람부니 작은목욕탕 이용객 급증

순창군, 온수탱크용량 증설

주민 불편 해결... 운영 만전

본격적 추위가 시작되면서 순창군이 운영하는 작은목욕탕에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군이 온수탱크 용량을 증설해 불편함을 맘껏 해결했다.

군은 올해 초 북쪽면과 생지면 작은목욕탕 온수탱크용량을 기존 10톤에서 15톤으로 증설한데 이어 최근 인계면 작은목욕탕과 적성면 작은목욕탕 온수탱크 용량을 8톤에서 13톤으로 증설해 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은목욕탕은 면지역 주민들이 읍내에 나오지 않고도 썬 가격에 목욕을 즐길 수 있어서 면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10월말 기준 올 한해 9개면에 서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 이용객은 3만 2천여명에 이른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7대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와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중석)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라 10건을 원안결, 2건을 수정결 했으며, 특히 손중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결돼 경제적 여건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지원으로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회는 28일부터 2018년도 예산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 금융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간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